

寒齋 李穆의 「絶命歌」에 對하여

姜 銓 燮*

目 次

1. 引 言
2. 「寒齋文集」의 形成·刊布
3. 所謂 「絶命歌」[二首]의 內容 檢討
4. 國文學史上的 位相·評價
5. 結 論

1

引 言：寒齋 李穆(1471~1498)은 朝鮮王朝 成宗 때의 名儒라고 한다.¹⁾ 그의 遺稿가 일찌기 「李評事集」이라는 書名으로 刊行된 바 있었으나 刊行 部數가 별로 많지 않았기 때문에 研究者와 社會 人士들이 편하게 求하여 보기 어려웠던 것을 數年前에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도록 國譯重刊本을 發刊 普及함으로써 우리가 寒齋의 高邁한 人格에 接觸할 수 있게 된 것이다.

筆者는 「寒齋文集」을 今年初(1987. 1. 10)에 비로소 閱覽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 中에서 筆者의 注目을 끌게 된 것은 所謂 「絶命歌」 2首였다. 作品의 題目

* 대전실업전문대학 교수

1) 張維撰：「寒齋李公墓誌銘」 『寒齋文集』，寒齋宗中管理委員會，1981. 8. p. 507.

아래에 「反諺」이라고 註記된 것으로 보아 原文이 國文詩歌였음을 미루어 알 수 있으나 文集에는 漢譯歌만 收錄되었으므로 原典의 모습을 알 수 없는 것이 매우 안타까운 일이었다. 그래서, 筆者는 作品의 製作 經緯라든지 原型의 再構와 歌意內容에 대한 檢討를 할 必要가 있다고 보아 鄙見을 간략히 피력해 보려고 한다.

作品의 贗作 또는 僞作이라든지 作者附會에 대한 問題는 결코 어제 오늘에만 있었던 現狀이 아님은 周知의 事實이거니와,²⁾ 筆者는 새 資料가 發掘 報告될 적마다 史料批判에 대한 嚴格한 態度를 지켜 왔다.³⁾ 그러므로, 本稿에서도 筆者의 直觀한 바를 거리낌없이 밝혀 두려고 한다.

2

「寒齋文集」의 形成·刊布: 國譯本 「寒齋文集」의 母本은 「寒齋集」(重刊本)과 「李評事集」(初刊本)이므로, 먼저 「李評事集」의 書誌 事項을 알아 보기로 한다. 「奎章閣圖書目錄」에는

「李評事集 李穆(朝鮮)著. [仁祖9年(1631)] 2卷 1冊(87張)
困 30.7×20cm. 四周雙邊.
半葉匡郭: 20×15.4cm. 有界. 10行 17字.
版心: 上下花紋魚尾.
跋: 崇禎四年辛未……………李久澄.」

이라고 적혀 있고,⁴⁾ 「韓國古書綜合目錄」에도

「李評事集 李穆 著. [序: 崇禎4年(1631)] 木版本. 2卷 1冊(87張).
29×20cm. 四周雙邊.
半匡: 20×15.4cm. 有界. 10行 17字 注雙行.
版心: 上下花紋魚尾.

-
- 2) 宏業書局編輯部編: 『僞書通考』 台北, 宏業書局, 中華民國 64年 6月. 參照.
 - 3) 拙著: 『韓國古典文學研究』 大旺社, 1982. 3, pp. 83~142.
拙著: 『韓國詩歌文學研究』 大旺社, 1986. 3. pp. 16~142. 參照.
 - 4) 『奎章閣圖書韓國本綜合目錄』 서울 大圖書館, 1983. 10, p. 1677.

跋：崇禎四年辛未……………李久澄。」

이라고 밝혀져 있다.⁵⁾

그런데, 國譯改編本の 臺本인 重刊本 「寒齋集」의 書誌事項과 主要內容을 아울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寒齋集 李穆(朝鮮)著. [1914年 甲寅後孫 膺浩 重刊]

木版本. 4卷 2册 (115張).

四周單邊. 24.5×17cm. (影印洋裝本) 半葉匡郭:14.5×11.7cm(縮小影印).

有界. 10行 18字. 注雙行.

版心：上 花紋魚尾.

序跋：重刊序……………甲寅孟夏上澣 德殷宋炳華序. (卷首)

·原集跋……………崇禎紀元之四年重光協治暮春上澣 通政大夫行青松府使曾孫久澄謹跋. (附錄卷一 後尾)

·重刊跋……………甲寅之正陽月日 後孫存洙 謹識. (附錄續 後尾)

·張數：卷一(上) 36張, 卷二(下) 24張, 附錄卷一(上) 29張, 附錄續(下) 27張, 都合 115張.

·目錄：卷一：賦(10篇), 五言絶句(2首), 七言絶句(15首), 五言律(12首), 七言律(9首), 七言古風(4首, 追補 七言律 3首, 七言絶句 1首, 歌 1篇(絶命歌 反諺).

·卷二：頌(1篇), 策(3篇), 記(1篇), 解(1篇), 祭文(1篇).

·附錄卷一：感舊遊賦後序(金鼎孫)等, 柳子光傳(南袁)等, 戊午史禍源由, 戊午黨籍 等, 墓表陰記(金尙憲), 墓誌銘(張維), 補遺, 原集跋(曾孫久澄).

·附錄續：復官爵事蹟(後孫存原), 贈諡史蹟, 諡狀(姜覲), 四賢祠勅建事蹟 等, 請從享文廟疏(尹正洙等), 忠賢書院事蹟碑銘(崔奎瑞), 祝文·告由文等, 重刊跋(後孫存洙)

그리고, 國譯本 「寒齋文集」은 1981年 8월에 寒齋宗中管理委員會(서울 踏十里 洞 465~55)에서 發行한 책인데 卷頭에는 刊行辭(十五世孫 炳圭), 推薦辭(東喬 閔泰植)와 寒齋李(穆)先生年譜(pp. 3~9), 全州李氏世系(p. 10)가 收錄되었으며, 本文 部分인 卷一(pp. 29~155)에는 歌詞(4篇), 賦(9篇), 詩(30篇), 疏(1篇), 啓(1篇), 策(3篇), 解(1篇), 記(1篇), 頌(1篇), 祭文(1篇)과 卷二의 附錄(pp. 156~

5) 『韓國古書綜合目錄』 國會圖書館, 1968. 12. p. 584.

232)에는 世系와 年譜의 原文과 翻譯文이 整理되었고, 卷三의 附錄(pp.233~306)에는 墓誌銘(張維), 墓表陰記(金尙憲), 諡狀(姜覲) 및 祝文, 諸家記述 등이 整理되었다. 또 「寒齋文集」本文의 緒頭에 새로 添加된 寒齋集序(甲辰元之日 昌山成九鏞謹序)와 附錄으로 追加된 集賢殿學士同僚錄(pp.274~280), 科榜錄(pp.281~284), 師友錄(pp.285~302)이 收錄되어 있으며, 卷末에는 跋文으로 翻譯所感(柳錫永), 譯解跋(十一世孫 炳元) 2篇이 적혀 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寒齋集」重刊本の 原文이 縮小影印되어 있어서 寒齋 研究者들에게 적지 않은 도움을 주고 있다.

따라서, 위 記錄들과 「寒齋集」의 原文·跋文에 의하면, 寒齋 死後에 아들 世璋(1497~1562, 錦江漁叟)에 의하여 遺稿가 一次의으로 收拾되고 靑松府使였던 曾孫 久澄(1568~1648)에 의하여 遺稿의 初刊本인 「李評事集」2卷 1冊(87張本)이 仁祖 9年(1631) 辛未에 비로소 刊行되었고 다시 後孫 存原·存洙·膺浩 등에 의하여 二次의으로 追補되어 重刊本인 「寒齋集」4卷 2冊(115張本)이 1914年(甲寅)에 再刊하였음을 確認할 수 있다.

그러므로, 本稿의 研究對象인 「絕命歌」는 적어도 仁祖 9年(1631) 以前에 爲先心이 놀라운 遺稿整理者들에 의하여 反諺(漢譯) 採錄되었음을 理解할 수 있게 되었는데 原歌의 傳承 經緯는 分明하지 못하다는 事實도 아울러 看破하게 된 것이다.(後添 「寒齋集」 寫眞 參照)

3

所謂 「絕命歌」[二首]의 內容 檢討 : 前述한 바와 같이, 寒齋 李穆(1471~1498)의 詩文集인 「寒齋集」(重刊本) 卷一 末尾에는 楚辭體로 漢譯한 「絕命歌 反諺」[二首]가 收錄되어 있다. 먼저 原文을 轉載하고 拙譯 時調 2首를 옮겨 보면 다음과 같다.

絕命歌 反諺 [二首]

「[黑]雅之集處兮 白鷗兮莫適.
彼雅之怒兮 諒汝色之白歎.

清江濯濯身[兮] 惟慮(恐)染爾之血兮.
 掩卷而推窓[兮] 清江白鷗浮.
 噫爾唾涎兮 清濡乎白鷗背.
 白鷗兮莫怒 汚彼世人而唾也.」

(*가마귀 모인 곳에 白鷗야 가지 마라.
 성년 가마귀 흰빛을 새오나니
 清江에 조히 씻은 몸 더러일가 하노라.

册 덮고窓을 여니 清江에 白鷗 떴다.
 偶然히 뱀은 침이 白鷗 등에 떨어졌다.
 白鷗야 성내지 마라 世上이 더러워서 하미라.⁶⁾

위에서 보인 바와 같이, 所謂「絶命歌」2首는 「寒齋集」의 記錄에 따른다면 寒齋 李穆(1471~1498)이 1498年(燕山君 4年) 戊午史禍에 連累되어 28歲의 젊은 나이로 死刑을 받고 自盡하여 絶命할 때에 남긴 時調作品이라고 할 수 있으나, 筆者가 翻譯을 試圖한 作品 內容에 의하면 絶命時의 作品이라기 보다는 世上 사람들이 物慾에 어두어(物慾交弊) 純粹하지 못함을 清江의 白鷗에 譬喩하여 읊어 본 作品으로 人生의 黃昏期에 접어든 人格이 圓熟한 사람(선비·山林學者·掩卷大息 하는 讀書人)이 江湖에서 노닐면서 自身의 鬱憤을 풀을 길 없어서 노래(歌曲·時調形式)를 빌어서 述懷하였던 單純한 述懷歌로 把握해야 옳지 않을까 한다. (下文參照)

만약 筆者의 直觀이 옳다고 한다면 傳李穆의 「絶命歌」(筆者假稱「清江白鷗歌」2首)도 傳邊安烈(?~1390)의 「不屈歌」⁷⁾, 傳李穡(1328~1396)의 「寒梅詞」⁸⁾, 傳金忠甲(1515~1574)의 「長松歌」⁹⁾등의 時調 作品들과 같이 後人 또는 後孫들의 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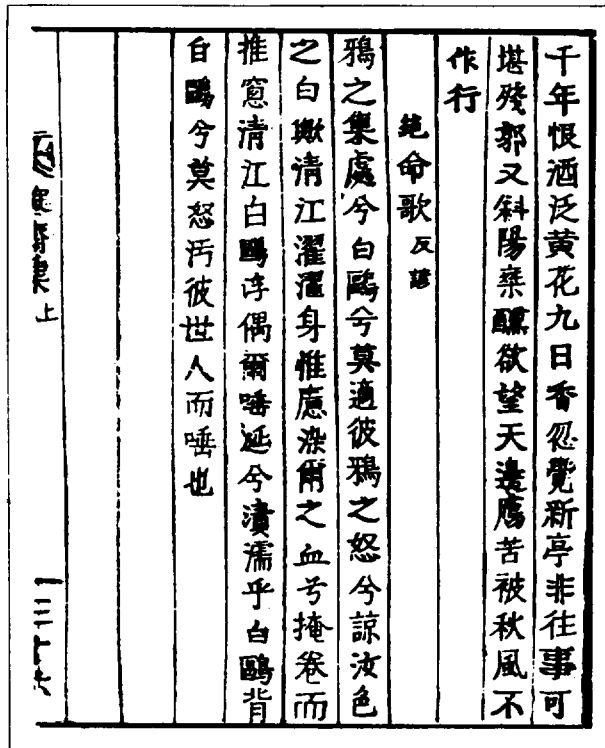
6) 「寒齋文集」寒齋宗中管理委員會, 1981.8. p.29, p.412. 參照.

7) 拙稿: 「傳邊安烈의 不屈歌 賈作論」『語文研究』第12輯, 語文研究會, 1983.12. pp.1~14.

拙著: 『韓國詩歌文學研究』 pp.37~49. 參照.

8) 池憲英: 「寒梅詞 芻議」『崇田語文學』第1輯, 崇田大學校 國語國文學科, 1972. 12. pp.175~192. 參照.

9) 金忠甲著: 「龜巖先生集」卷之一 23張과 卷之二 附錄「大麓誌」條에는 金忠甲 作이라는 「長松歌」의 漢譯歌(伐之耳伐之耳 落落長松伐之耳. 少焉頃置之 棟樑



특한 마음(爲先心)에서 돌아난 贗作 附會의 結果라고 理解해야만 될 것이 아닌
가 한다.

筆者의 直觀을 좀더 具體的으로 밝혀 보면, 所謂「絕命歌」의 첫째 作品은 近
來에 와서 金鼎九(? ~ ?)의 作品으로 알려진¹⁰⁾ 傳鄭圃隱母堂作이라는 「白鷗
歌」인

之材成之耳。吁嗟乎大廈傾之式于 何以柱之。)와 國文本이 收錄되었는데 그 眞
否를 알 수 없다. (別稿 詳考)

10) 李希齡著：『藥坡漫錄』(寫本，94卷 60冊，1832.) 「金鼎九傳」에는 「性好酒 醉
輒爲短歌，其辭曰 鳥巢枝 白鷗憤莫窺，怒鳥 妬諸白色。滄滄水濯濯羽 怕他啄

「가마귀 ㅍㅍ호는 골에 白鷺」야 가지 마라.
 성년 가마귀 흰빛출 새울세라.
 淸江에 잇것(조희) 시슨 몸을 더러일가 호노라.」

(珍本靑丘永言, 380)

를 換骨奪胎한 變容作임을 쉽게 看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連作時調라 할 수 있는 둘째 作品은 첫째 作品의 詩想에 의거하여 敷衍한 作品으로 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둘째 作品의 起句인 「冊 덮고 窓을 여니」(掩卷而推窓)라든지 中章의 첫귀인 「偶然히 ㅍ은 침이」(偶爾唾涎兮)와 作品의 結句인 「世上이 더러워서 하미라.」(汚彼世人而唾也)에 담겨진 一連의 생각들이 결코 숨을 거두며 臨終時에 털어놓지 않을 수 없는 그렇게 懇切한 人生의 마지막 所願이 될 수가 없다고 보아지기 때문이다. 또한 만약 李穆의 原作임에 틀림없다면 作品 內容에 걸맞지 않는 「絶命歌」라고까지 強調하여 억지로 浮刻시켜 보려고 할 나위가 전혀 없었을 것으로 보아지기도 하기 때문인 것이다.

이러한 筆者의 씩씩한 發言은 어느 누구를 헐뜯거나 誹謗하려고 함이 아니고 事實을 事實 그대로 보고자 함에 있음을 거듭 밝혀 두는 바이다. 다시 말하면, 先賢이 지었다고 하는 事實을 굳이 否認하기 위한 否定的 發言이 아니고 眞實을 알아내기 위함에 있는 것이다. 學問은 眞理를 探究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4

國文學史上的 位相·評價; 먼저 「絶命歌」의 作者라고 傳하는 李穆의 生涯를 文獻에서 찾아보기로 한다.

近來의 名著인 「韓國人名大事典」 李穆條에는

向風塵落.」이라 적혀 있고, 「東史節要」에는 「[鄭夢周]母 知其偉器, 作白鷺歌以勸之曰 白鷺白鷺 勿入黑烏群, 夢周 反其語 作爲歌曲 以示不變.」이라고 記錄되어 있다 한다.

申嘆澈: 「古時調新釋」 東國文化社, 1946. 10. p. 52.

鄭鈺東·俞昌植校註: 「珍本靑丘永言」 新生文化社, 1957. 9. pp. 514~515.

「李穆 1471(成宗 2)~1498(燕山君 4)

〔朝鮮〕文臣. 字는 仲雍, 號는 寒齋, 本貫은 全州, 開國功臣 伯由의 後孫[五世孫], 閔生의 아들. 金宗直의 門人. 19세로 進士試에 合格, 成均館 儒生이 되어王大妃가 成均館에 淫祠를 설치하여 巫堂을 부르자 이를 쫓아냈으며, 한편 儒生을 이끌고 尹弼商을 탄핵하다가 公州에 付處되었다. 뒤에 풀려나와 1495년(燕山君 1) 增廣文科에 장원, 賜暇讀書를 했고, 典籍으로 宗學司簿를 겸하고, 이어 永安道 評事가 되었다. 1498년(燕山君 4) 戊午史禍에 尹弼商의 모함을 받고 金駟孫·權五福 등과 함께 死刑되었다. 甲子土禍(1504)때 다시 剖棺斬屍되었다가 뒤에 仲寬, 吏曹判書에 追贈, 公州의 忠賢書院에 祭享, 諡號는 貞簡.

〔著書〕李評事集 [文獻] 燕山君日記, 木溪逸稿, 燃藜室記述, [海東野言], 國朝人物考.¹¹⁾

라고 叙述되었으며, 谿谷 張維(1587~1638)의 「墓誌銘」에는

「故永安南道評事贈吏曹參判李公諱穆 字仲雍 成廟朝名儒也. 燕山戊午 坐史事被害 墓在通津霜浦 歷百有二十八年而金[相]公尙憲 記其表, 又七年而公之曾孫府使久澄 請維 銘其窆 嗚呼公之歿(沒)也久矣, 然讀其書 想見其人 凜凜猶有生氣是可銘也已.

公少從佔畢(僮) 金公受業 力學工夫(文)詞, 於書嗜左氏春秋 於古(故)人慕范文正之爲人, 年十九 中己酉進士第二名 游太學 言論慷慨 志氣峻烈 襁褓臧否 無而回互 以此爲流輩所推服……(中略 謫公州事實)…….

中乙卯文科壯元 授成均館典籍兼宗學司誨 出爲永安南道評事, 及戊午史獄起 公果爲弼商所構陷 與金駟孫權五福等 同被酷禍, 臨刑 神氣如常 自作絕命歌 時年二十八. 弼商 恨公猶不(未)已 至甲子之禍 戮(讞)及泉壤 嗚呼慘矣, 中廟踐阼(祚) 命復官 後以子貴 贈今(令)官……(中略 世系)……. 有子世璋 生一歲而公被禍 及長 擢文科 官至觀察使……(中略 子孫錄)…….

公有遺稿二卷 行於世, 公州人士 以公嘗謫於是也 俎豆公(×)于忠賢書院 嗚呼足以不朽矣. 銘曰

嗚呼李公 骨朽名芬 其墓雖故 其銘則新.¹²⁾

11) 『韓國人名大事典』新丘文化社, 1967. 5. p. 627, (李穆).

『韓國語大辭典』玄文社, 1976. 3. p. 2635, (李穆) 參照.

12) 『韓國人物考』(中) 서울大出版部, 1978. 2, (影印本), pp. 1352~1353.

『寒齋文集』 pp. 233~236, pp. 507~511. 參照.

이라고 밝혀져 있다. 그러므로, 所謂「絶命歌」가 李穆 絶命時의 遺作이라고 한다면 戊午史禍가 일어났던 燕山君 4年(1498) 7月 26日에 製作된 作品으로 보아야 하겠으나, 前述한 바와 같이 多分히 李穆의 作品으로 볼 수가 없다고 한다면 말할 것도 없이 寒齋의 遺稿인 「李評事集」 編纂期의 贗作(偽作) 또는 作者附會의 實例로 들어야 할 作品에 不過하다고 하겠다. 그러하지만, 비록 贗作附會된 作品이라고 할지라도 진실로 그 作品 內容이 훌륭한 作品이라고 한다면 그런 대로의 價値는 물론 있다고 하겠으나, 考古美術界의 常識에 의하면 偽作 또는 模造品은 결코 좋게 評價되지 않는다고 한다. 아무리 서투르고 거치른 솜씨라고 할지라도 거짓 없고 꾸밈 없는 純粹性·眞實性·素朴한 人間美에서 그 作家(作者)의 참다운 면을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따라서, 所謂「寒齋絶命歌」의 位相과 評價도 이러한 觀點에서 時調文學 研究者들의 密度있는 論難 熟議와 多角度的 再考가 있고서야 事實이 事實대로 비로소 究明되리라 본다. 아뭏든 「清江白鷺歌」의 異本인 「清江白鷗歌」의 漢譯歌 異本이 學界에 또다시 알려지게 된 것은 반가운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5

結 論: 위에서 간략히 論述한 것을 다시 간추려 보기로 한다.

1) 寒齋 李穆(1471~1498)은 朝鮮王朝 成宗 2年(1471)에 開國功臣 李伯由(完城府院君 諡良厚公)의 五世孫으로 태어나 큰 뜻을 펴지 못하고 28歲의 젊은 나이로 燕山君 4年(1498) 7月 26日(正午 一刻)에 戊午史禍의 祭物로 犧牲된 人物이다. 錦江漁叟 李世璋(1497~1562)은 그의 아들이고 「悲歌十首」를 남긴 松巖 李廷煥(1604~1671)은 그의 五世孫임을 밝혀 둔다.¹³⁾

2) 寒齋 李穆의 文集인 「李評事集」 2卷 1冊(87張)은 仁祖 9年(1631)에 曾孫인 李久澄(1568~1648)이 遺稿를 蒐輯 整理하여 刊行하였는데 後孫 李存原·李存洙·李膺浩 등에 의하여 「寒齋集」 4卷 2冊(115張)이 1914년에 增補 重刊되었고 近

13) 梁淳秘: 「李廷煥의 悲歌 研究」 『국어국문학연감』 고전문학편, 二友出版社, 1980. 6. pp. 135~158.

梁淳秘: 「李廷煥論」 『古時調作家論』 續篇, 白山出版社, 1987. 發刊 豫定.

『公州郡誌』 公州郡儒道會, 1957. 6. 第二編, pp. 6~7, p. 17, p. 18 參照.

者(1981.8.)에 다시 國譯版을 내고 重刊本을 附錄으로 影印 普及함으로써 새롭게 照明을 받게 된 것이다.

3) 寒齋 李穆의 「絕命歌」라고 하는 短歌(時調) 2首는 連作時調(連時調)라고 할 수 있는데 그 歌意內容에 따른다면 作品 이름을 「淸江白鷗歌」라고 할 수 있는 述懷時調이다. 傳해 온 文獻 記錄(張維撰「墓誌銘」參照)에 따르면 燕山君 4年(1498)에 製作된 作品으로 보아야 하겠으나 歌意內容으로 보아 「李評事集」 編纂 時期에 贗作附會되었을 可能性을 排除할 수가 없을 것이다.

4) 「絕命歌」는 臨終 直前に 부른 노래라는 뜻인데 作品의 歌意內容과 臨終時의 狀況에 비추어 본다면 寒齋 自身の 臨終作이라고 보기 어려운 作品이라고 보아진다. 識者들은 時調 形式의 形成期를 成宗代로 注目하고는 있으나 이 作品이 그때에 死刑場에서 即興으로 지어졌다고 連斷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傳李穆作 「絕命歌」 2首는 「李評事集」 編纂期(仁祖 9年 以前)에 李久澄 등에 의하여 贗作附會된 作品으로 把握해야 옳을 것이다.

5) 傳李穆作 「絕命歌」 2首 중의 첫째 作品은 黑白의 論理로써 守分持節의 教訓을 담은 教訓時調이고, 그 둘째 作品은 偶然한 失手로 過誤는 저질렀으나 汚染된 世上의 人心을 淸江의 白鷗에 譬喩하여 作者의 鬱憤을 吐露한 諷刺時調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作者未詳이라 할 連作時調인 假稱 「淸江白鷗歌」 2首는 刑場에서 죽음에 直面한 사람이 泰然自若하게 述懷한 作品이 아니고 (臨刑 神氣如常 自作絕命歌 時年二十八——墓誌銘) 人生의 黃昏期에 접어든 어느 圓熟한 人格者가 混濁한 社會相을 바라보면서 自身の 心情을 구밈없이 述懷한 作品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臨終에 다달은 死刑囚가 絕命 直前に 泰然히 時調를 지어 불렀다고 하는 時調創作傳說是 결코 常識의인 眼目으로 判斷하여도 首肯할 수가 없다는 생각을 거듭 밝혀 둔다.

여기에 또 筆者의 臆測을 덧붙인다면 「淸江白鷗歌」(所謂 「絕命歌」의 假稱) 2首는 李穆의 아들인 錦江漁叟 李世璋(1497~1562)이 或然 한때 錦江 가에서 노닐면서 불렀던 晩年 作品이 종이 쪽지에 적히어서 寒齋의 遺稿와 함께 篋中에 쌓여 있다가 曾孫 李久澄(1568~1648)의 周邊人物들이 寒齋의 作品으로 잘못 判斷하여 文集의 末尾에 漢譯하여 收錄하였던 것이 아닐까하는 存疑를 表明해 둬으로써 後日의 研究課題로 남겨 둔다.

[1987. 2. 28. 脫稿]

參 考 文 獻

1. 李 穆：『李評事集』 2卷 1冊(87張) 1631.
2. 李 穆：『寒齋集』 4卷 2冊(115張) 1914.
3. 李 穆：『寒齋文集』 3卷 1冊,寒齋宗中管理委員會(國譯 影印附錄本) 1981.
4. 金尙憲：『清陰集』 40卷 16冊, 1636.
5. 張 維：『谿谷集』 36卷 18冊, 1643.
6. 姜 渾：『木溪逸藁』 2卷 1冊, 1908.(寫本)
7. 許 筠：『海東野言』 2卷 2冊, 『朝鮮野史全集』 第2卷, 癸酉出版社, 1934.
8. 『國朝人物考』 서울大出版部, 1978. 2. (影印本)
9. 『韓國人名大事典』 新丘文化社, 1967. 5.
10. 玄文版 『韓國語大辭典』 附錄, 玄文社, 1976. 3.
11. 『韓國古書綜合目錄』 國會圖書館, 1968. 12.
12. 『奎章閣圖書韓國本綜合目錄』 서울大圖書館, 1983. 10.
13. 『燕山君日記』 『朝鮮王朝實錄』 12·13·14, 探求堂, 1982. 3. (影印本)
14. 拙著：『韓國古典文學研究』 大旺社, 1982. 3.
15. 拙著：『韓國詩歌文學研究』 大旺社, 1986. 3.